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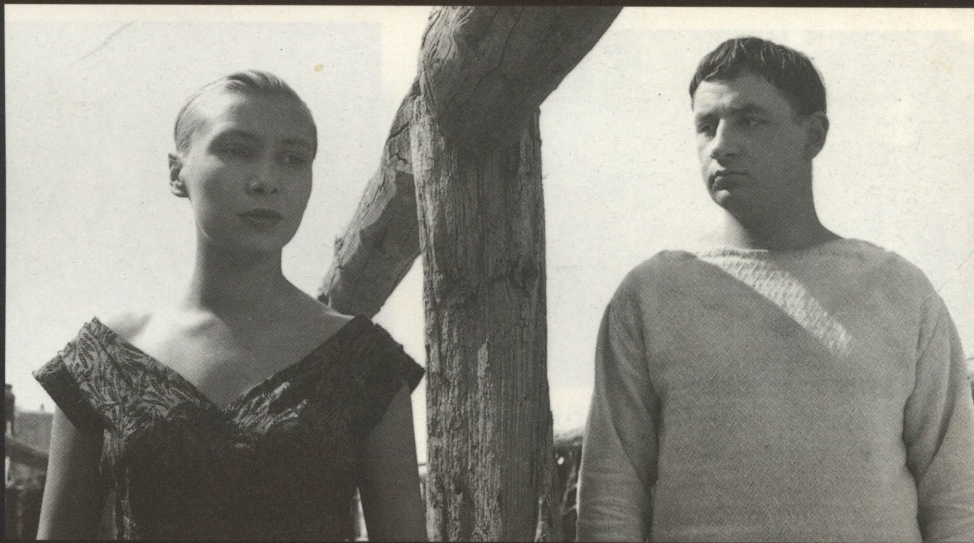
2001. 4. 16 제2호

# WFFIS Daily

제3회 서울여성영화제

## WFFIS Daily

- 1 라 푸앵트 쿠르트로의 여행
- 2 WFFIS News
- 4 개막식에서 만난 사람들
- 5 감추! 오늘의 영화  
이삭줍는 사람들과 나  
역사수업  
사망통지서
- 6 객석에서 '영화제가 끝나고 나면'  
2001 WFFIS 첫 관객 윤희재 · 김현진 커플을 만나다  
"연인이 함께 즐기는 여성영화제"
- 7 English Edition



### ◆오늘의 영화

- 동송아트센터 동송홀
- 1회(11:00) <라 푸앵트 쿠르트로의 여행>
  - 2회( 1:30) <흔적없는 여행>
  - 3회( 4:00) <이삭줍는 사람들과 나>★
  - 4회( 6:30) <미도리> ★
  - 5회( 9:20) <걸파이트>

### 하이퍼텍 나다

- 1회(11:00) <팬자와 담쟁이> / <재희 이야기>
- 2회( 1:30) <사망통지서>
- 3회( 4:00) <일어나!>
- 4회( 6:30) <뉴슈: 여성의 언어> / <역사수업> ★
- 5회( 9:20) 아시아 단편경선 1 :  
<그랜마> / <리플레이> / <모델> /  
<가타 스웨트1.1> / <이미지> /  
<타리 이야기>

### ◆오늘의 이벤트

#### 필라댄스

오후 9:00 여성운동가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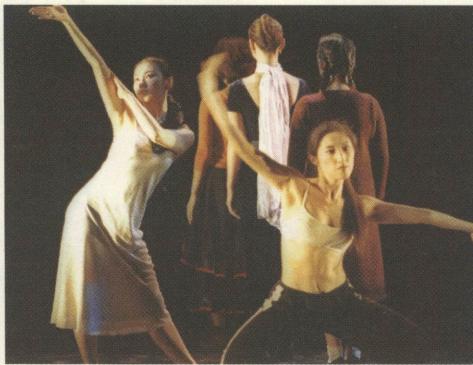
★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 있습니다.

※ 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라 푸앵트 쿠르트로의 여행

프랑스/감독 아네스 바르다/1954/89분/35mm/b&w

서울여성영화제는 특정한 지역이나 사조의 여성영화를 깊이있게 조명해왔다. 제3회 여성영화제에서 특별전을 갖게 되는 주인공 아네스 바르다는 프랑스 누벨바그의 대모라고 불리며, 40여년 동안 극영화와 다큐멘타리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왕성하게 활동해온 원로 감독이다. 바르다는 1960년대 이후 일관되게 페미니즘과 좌파 정치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왔는데, 데뷔작 <라 푸앵트 쿠르트로의 여행>은 한 커플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한 시골 공동체의 이야기라는 두 가지 종류의 연대기를 혼합하여 지중해 연안의 여초를 그려낸 작품이다. '프랑스 누벨바그의 진정한 첫 번째 영화'로 이름 붙여진 이 영화는 복잡한 서사구조, 양식적인 혁신, 시점의 실험, 네오리얼리즘적인 분위기와 모더니즘의 주관성을 통해 1950년대 후반 프랑스 영화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되고 있다.



여성영화제의 식전 퍼포먼스와 개막식에 참석한 내빈, 야외광장까지 가득메운 영화애호가들.

### 제3회 서울여성영화제 개막

## “여럿이 함께 꿈꾸면 이루어지리라”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본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 3회 서울여성영화제 개막식이 5백석의 좌석과 입석을 가득 메운 채 뜨거운 호응 속에 열렸다.

배유정씨와 진희경씨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은 무용가 남정호씨의 식전 퍼포먼스 〈여성의 꿈〉과 축하공연 〈속삭임〉으로 시작돼 이혜경 집행위원장의 개회사와 김한길 문화부장관, 한명숙 여성부장관의 축사로 각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어 프로그래머들의 추천작품 맛보기, 프랑스 누벨바그의 어머니 아네스 바르다와의 만남, 아시아 젊은 여성영화감독들 소개와 함께 영화제 개막작 〈거류〉의 김소영 감독과의 짧은 대화 및 개막작 상영으로 화려한 시작을 알렸다. 부문별로 개막식 소식은 다음과 같다.

#### ■ 식전 행사

몇 겹으로 둘러진 형식적 껍질을 하나하나 벗어던짐으로써 진정한 여성의 아름다움과 힘을 드러낸다는 주제로 마련된 〈여성의 꿈〉과 〈속삭임〉(안무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남정호 교수, 공연 : 크누아 안무집단)은 혼례복의 단아한 여자가 스스로 옷을 벗으며 시작했다. 그럼으로써 한국 전통혼례의 가장 하이라이트이자 마지막 순서에서 신방에 들어간 신랑이 신부의 옷을 벗겨 주는 것에 대해 ‘여성 스스로 옷을 벗을 수 있다?’ 이란 질문을 제기한 것.

남자가 아닌 여자의 도움으로 그리고 결국은 혼자 힘으로 일어난 여인은 나비가 되고자 허물을 벗듯 자신의 옷을, 족두리를, 신발을 벗는다. 속치마 차림으로 무대에 오른 여인에 이어 독립적이고 힘찬 젊은 여성의 독무가 끝나고 일본, 프랑스, 영국, 스페인을 상징하는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모여 서로 도와가며 한 데 어우러져 하나가 됐다.

#### ■ 개회사 및 축사

발갸게 상기된 얼굴로 무대에 오른 이혜경 집행위원장은 개막의 흥분된 분위기를 전하듯 떨리는 목소리로 “꿈은 혼자 꾸면 꿈에 불과하지만 여럿이 함께 꾸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서울여성영화제가 그렇습니다”는 말로 영화제의 개막을 선포했다.

이 위원장은 3회에 이르는 동안 서울여성영화제가 “아시아 여성동료들과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으로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며 “이제까지의 서구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역사를 넘어 아시아 여성영화인들이 함께 만나 여성으로서 서로의 처지의 같음과 다름을 영화 안팎에서 확인”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어 “한국을 대표하는 연기자 최명길씨”와 동참한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21세기를 여성의 시대로 규정하고,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여성의 탁월한 창조력과 섬세한 감수성의 중요성을